

# 대표팀을 지켜주던 손흥민, 대표팀이 지켜줘야 할 손흥민

상대팀 선수에 거친 태클 시도…넘어지며 타 선수와 부딪혀 크게 다쳐  
이후 손흥민 괴로워하는 모습에 정신적 부상 ‘트라우마’ 우려  
양팀 감독·선수·현지언론 “의도 전혀 없어…3G 출전정지 과해”

자타공인, 손흥민은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기둥 같은 존재다. 기량 면에서 ‘에이스’의 존재로 올라선 것은 꽤 오래다. 여기에 ‘구심점’ 임무까지 추가했다.

지난해 러시아 월드컵이 끝난 뒤 대표팀 주장으로서 기성용에게서 손흥민으로 넘어왔다. 그리고 올해 1월 UAE에서 열린 아시아 축구연맹(AFC) 아시안컵을 끝으로 기성용(그리고 구자철)이 대표팀 은퇴를 선언하면서 ‘완장’이라는 상징적 물건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리더의 역할도 손흥민의 몫이 됐다.

시나브로 태국 마크의 사명감과 자부심이 줄어들고 있는 와중 손흥민은 보이지 않는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노력에도 충실했다. 실력, 인성, 리더십 등 많은 면에서

본보기로 꼽기에 부족함 없었다. 선수배 동료들의 든든한 베풀목 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게 대표팀을 지켜주던 손흥민이 안티까운 상황에 처했다.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플레이 도중 상대방에게 큰 부상을 가했다. 객관적인 시선을 바라봤을 땐 손흥민의 탓보다는 이후 과정에서 비극이 발생한 것이지만, 어쨌든 단초가 된 행동을 펼치면서 여러모로 괴로운 상황이 됐다. 다행히 대표팀 소집 기간이 맞물려 있다. 대표팀이 손흥민을 위로해주고 지켜줄 필요가 있다.

손흥민은 지난 4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영국 리버풀의 구디슨 파크에서 열린 2019-20시즌 EPL 11라운드 에버턴과의 원정경기에 선발 출전했다가 후반 34분 레드

카드를 받았다.

수비하던 과정에서 고메스에게 거친 비하인드 태클을 시도했고, 넘어지던 고메스는 오리에 와도 부딪히며 크게 다쳤다. 쓰러져 있는 고메스의 모습을 확인한 손흥민이 곧바로 머리를 감싸쥐며 괴로워하는 모습에서 부상 정도가 꽤 심각하다는 것이 느껴질 정도의 사고였다.

에버턴 구단은 하루 뒤인 5일 오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에버턴은 5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고메스가 발목 수술을 받았고 수술은 잘 마무리됐다. 병원에서 회복에 전념하며 재활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복까지 최소 반년 이상, 길면 1년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양팀 감독과 선수들을 물론, 영

국 현지 언론들도 손흥민의 의도가 전혀 없음을 알리고 있다. 맞물려 퇴장에 따른 3경기 출전 정지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런 것이 오롯이 위로가 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현지에서는 손흥민의 정신적 부상, 일종의 트라우마까지도 걱정하는 수준이다. 당장 7일 오전 조르바나 즈베즈다와의 UEFA 챔피언스리그 출전도 부정적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런 와중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대표팀 소집이 맞물려 있다는 것은 불행 중 불행이다.

손흥민은 오는 14일 베이루트에서 레바논과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예선 4차전, 그리고 19일 UAE 아부다비에서 브라질과 평가전을 치르는 대표팀에 합류할 계획이다.

4일 소집명단을 발표하던 벤투 감독은 “다른 무엇보다, 우선 고메스의 쾌유를 빈다”고 말한 뒤 “너무도 큰 사고지만, 이런 것은 축구를 하다보면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내가 이는 손흥민은 절대 악의적인 태클을 할 선수가 아니다. (그런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선수”라고 견해를 피력했다.

이어 “손흥민의 경기 출전을 조정할 생각은 없다. 힘들겠지만 다시 앞을 향해 정진해야 한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손흥민을 만나 위로 해줘야 한다. 다 털어낼 수

있도록 돋겠다”는 뜻을 전했다. 손흥민 입장에서도 불의의 사고이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도록 주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벤투 감독을 비롯한 코칭스태프 뿐 아니라 대표팀의 선수배 동료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대표팀을 지켜주던 손흥민을 이번에는 대표팀이 지켜줘야 한다. 팬들의 위로도 요구된다.

‘ERA 1위’ 류현진·‘탈삼진 1위’ 디그롬·‘4번째 수상 도전’ 슈어저  
NL 사이영상 최종 후보 3인 결정…14일 발표

2019 MLB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후보			
이름	류현진	제이콥 디그롬	맥스 슈어저
승	14승	11승	11승
패	5패	8패	7패
ERA	2.32	2.43	2.92
이닝	182⅓	204	172⅓
탈삼진	163	255	243
볼넷	24	44	33

2019 메이저리그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경쟁이 류현진(32·LA 다저스), 제이콥 디그롬(뉴욕 메츠), 맥스 슈어저(워싱턴 내셔널스)의 3파전으로 압축됐다.

MLB.com은 5일(한국시간) 사이영상에 비롯 MVP, 신인왕, 올해의 감독상 등 4개 부문 최종 후보 명단을 발표했다. 사이영상 최종 수상자는 오는 14일 발표된다.

2019시즌 맹활약을 펼친 류현진은 최종 후보 3인에 올랐다. 올해 정규시즌 개막전 선발, 올스타전

선발 등의 업적을 세운 류현진이 최고의 투수에게 주어지는 사이영상까지 노리게 됐다.

2013년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류현진은 올해 최고의 시즌을 보냈다. 29경기에서 14승5패 평균자책점 2.32를 기록했다. 평균자책점은 메이저리그 전체 1위였다.

류현진은 올해 총 182⅓이닝을 던졌다. 이는 바리그 데뷔 시즌이었던 2013년(192이닝) 이후 가장 많은 이닝이다. 승수도 2013년과 2014년 본인이 기록했던 개인 한

시즌 최다 승과 타이다.

특유의 제구력도 돋보였다. 류현진은 9이닝 당 볼넷 1.18개(메이저리그 1위)를 기록했다. 탈삼진도 총 163개를 잡으면서 개인 메이저리그 한 시즌 최다 기록(총전 2013년 154탈삼진)을 갈아 치웠다.

류현진은 전반기 10승2패 평균자책점 1.70이라는 압도적인 성적을 올렸다. 일찌감치 사이영상 후보로 평가 받았고 한때는 현지에서도 류현진의 사이영상 수상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즌 후반 슬럼프가 찾아왔다. 8월 4경기에서 1승2패 평균자책점 7.48로 부진했다. 결국 1점대 평균자책점도 무너졌고 사이영상 경쟁에 불이 붙었다.

류현진이 주축인 사이 디그롬이 급부상했다. 디그롬은 이번 시즌 32경기에서 11승8패 평균자책점



2.43의 성적을 올렸다. 또 2014년을 넘어서면서 디그롬은 1위, 맥스 슈어저는 2위로 평가했다.

MLB.com은 최근 사이영상 수상자를 전망하면서 디그롬을 1위, 류현진을 2위로 평가했다.

USA투데이도 최종 후보 발표 전 사이영상 전망에서 디그롬을 1위, 류현진을 2위에 올려놨다.

워싱턴의 창단 후 첫 월드시리즈 우승에 기여한 슈어저도 류현진, 디그롬과 비견될 정도로 좋은 시즌을 보냈다. 슈어저는 올해 27경기에서 11승7패 평균자책점 2.92의 성적을 올렸다.

뉴스1

장정석 감독 재계약 포기하고 손혁 신임사령탑 선임  
키움의 선택이 가져올 파장은?

당시 회의적인 평가를 받았던 들 었던 장정석 감독은 최근 야구회 름에 능통한 새로운 감독상을 구축하는데 성공하며 자신의 입지를 굳혔다.

하지만 키움의 선택은 재계약 불가였다. 키움 측은 ‘돈 문제는 아니며 변화를 원한 새 대표이사의 의중’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구단 경영진간 물질 경쟁이 감독선임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모기업이 없어 외부스폰서를 유치해 자생해야 하는 키움은 야구계에서 고격적이고 급진적인 선택을 감행하는 구단으로 명성이 자자하다.

김치현 키움 단장은 이번 선택이 일반적인 결정은 아니지 않느냐는 질문에 “(바깥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라고 인정했다.

뉴스1

BUS TOUR

설렘화순

버스투어

**2019. 3. 23(토)~11. 24(일)**

**매주 수, 토, 일요일**

**코스**

동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화순적벽→임대정원림→연둔숲정이→김삿갓동산  
→오지호 기념관 및 생가→화순읍

서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운주사→조광조유배지→고인돌유적지→화순적벽 →화순읍

**예약**

설렘화순 버스투어 홈페이지 <http://tour.hwasun.go.kr>

**현지탐승**

이서커뮤니티센터, 미 예약 방문객 현장 선착순(1대)

**명품화순 행복한 운마**

**화순군**

Hwasun-gun

**임대정원림**

**연둔숲정이**

**김삿갓동산**

**오지호 기념관**

**조광조유배지**

**고인돌유적지**

**운주사**